

知性の 意味 限定

-혜-겔의 歷史哲學에 비추어③-

金俊善

그러나 『歷史』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. 『歷史는 決코 幸福스러운 王土가 아니다』 歷史는 決코 平和의 花園이 아니다. 悲劇의 나라 暴風의 地帶이다. 모-든 優秀善良한 人間적 營爲의도 여기선 애처로운 最後를 가졌다. 『歷史는 모-든 것을 理性에 提供한 屠殺者』라고 한 『혜-겔』의 말은 너무나 慘酷할지 모른다. 그러나 이것이 事實인데야 어떠하나- 이 事實을 아메할 때 『혜-겔』은 울지 안힐 수 업섯다. 憂秋悲歎을 禁치 못한 까닭이다.

그러나 『혜-겔』은 인차 눈에 영킨 눈물을 씻고 歷史의 넓은 들판을 바라다보았다. 거기서 發見한 것이 理念(理性)의 生命이다. 理性의 生命은 自己自身을 直線적인 幸福, 平和보담 曲線적인 不幸悲劇(矛盾)을 通하여 貫徹해 가는 것이라고 生覺했다.

이것이 卽 『혜-겔』의 生命的, 目的論的 聯關이다. 그러나 吾人은 바로 여기서 『혜-겔』의 自己矛盾 乃至 困難을 發見한다. 『혜-겔』은 그의 『눈물以前』에는 歷史의 事實의 側面에 卽하여 歷史의 不調和性을 보았고 『눈물以後』에는 歷史의 理性的 價値에 卽하여 歷史의 調和性(生命的, 合目的性)을 보았다. 이 理性的 調和性과 저 事實의 不調和性을 어찌 調和시키느냐? 여기에 根本的 『혜-겔』의 困難이 있다. 이 困難을 避하기 爲하여 捻出한 『理性의 狡猾』은 多少 理解하기 어렵다.

그러나 吾人은 全的으로 『혜-겔』을 否認하려고도 안한다. 『혜-겔』에게 一片의 辯護船을 주면서 다음과 가티 解釋하는 것이 오히려 妥當하다고 생각한다. 卽 『혜-겔』이 文化를 歷史를 한 個의 『生命』으로 生覺한 것은 結局 한 개의 比喩에 불과한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生覺한다. 그리고 吾人은 나아가서 『혜-겔』이 歷史를 目的論的 聯關으로 理解한 것도 이것을 多少 同情的으로 合目的, 生命的 聯關이라고 解釋치 안코 그 背後의 意味를 살귀서 歷史의 自覺的 發展性이라고 理解한다.

여기서 『헤-겔』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습目的的 聯關을 누르고 自覺的 發展性을 表面에 引出하는데 있다. 『헤-겔』은 그가 思想的으로 □□한 『라이부닛츠』와 달러서 『矛盾』과 『偶然』을 누구보담 잘 理解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더욱 그의 目的論的 聯關을 吾人과 가티 解釋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한다.

그러나 學問的 良心은 決코 同情과 追從에 終始하여서는 안된다. 우리는 客觀的으로 『헤-겔』의 限界를 서슴없이 認定하여야한다. 『헤-겔』의 生命的 『目的論的 聯關』은 그의 歷史哲學의 特性인 同時에 여러 가지 短點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吾人은 여기서 『헤-겔』의 生命의 概念을 比喩的으로 使用하고 그의 『目的論的 聯關을』 歷史의 自覺的 發展性이라고 解釋하면서 吾人의 歷史理念을 展開하여 보기로 한다.

身體와 精神이 統一되는 樣式에 딸아 『아미-바-』 [아메바]의 下位 等 自覺的 生命으로부터 自覺的인 人間的 生命에 일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文化도 歷史를 通하여 自己의 理性的 自覺에 到達하는 것이다. 여기에 文化의 開明, 卽 精神의 歷史的 自覺이 잇는 것이다...이하(원문해독 불가)...